가가번 세공소

가가번 세공소는 16 세기 후반에 가가번(현재의 이시카와현 및 도야마현)에서 설립된 공예 공방입니다. 가가번을 통치했던 마에다 가문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에도 시대(1603~1867)가 끝나고 1868 년에 폐쇄될 때까지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장인들이 서로 경쟁하며 공예품과 장식품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공방의 초기 목적은 다른 번의 공방과 마찬가지로, 에도 시대 이전 약 100 년에 걸친 전란의 시대에 무기 제조와 수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615 년에 도쿠가와 가문이 도요토미 가문을 멸망시키면서 전란이 끝나자 안정과 평화의 시대가 찾아와 무기나 갑옷 제작 및 수리 같은 수요는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가가번 제 3 대 번주 마에다 도시쓰네(1594~1658)는 공방의 목적을 장식미술과 공예 진흥에 중점을 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공방은 정식으로 '오사이쿠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성 아래 도시로 발전한 가나자와에 다양한 공예분야 숙련공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가 공예기술의 발전에는 제 5 대 번주 마에다 쓰나노리(1643~1724)가 크게 기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부인 도시쓰네 손에서 자란 쓰나노리는 열정적인 예술 애호가였습니다. 공예 발전을 위해 쓰나노리는 장인들이 공방 근처에서 공동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칠기, 그림, 금속공예 등 전문기술에 대한 지식이 가족이나 업계 내부에서 비밀로 전해졌으나, 가가번 세공소에서는 서로 다른 분야의 장인들이 모여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다른 공예기술이 융합되어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 쓰나노리는 특히 뛰어난 작품을 제작한 장인에게는 포상으로 보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가번 세공소의 많은 장인들은 본업인 공예품 제작 외에도 마에다 가문이 선호하던 일본 전통 가면극인 노, 다도와 같은 문화적 분야의 작품 제작에도 힘을 쏟았습니다.